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성희롱의 개념과 위법성 판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1)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사업주, 직장 내의 상급자가 될 것이며 동료,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거래처 관계자와 고객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가

해자에서는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의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까지 포함한다.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 되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3) 성희롱의 예방 및 사후조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수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타가에 출계한 자(子)가 친가의 종중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甲의 손자로서 현행 민법시행 이전에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乙과 丙의 후손들은 매년 甲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生家)의 추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무후절가(無後絶家) 되었습니다. 이 경우 타가에 출계한 乙과 丙의 후손들이 친가의 생부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A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례를 보면,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또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처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종중

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친가가 무후절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타가에 출계한 乙, 丙의 후손들이 매년 甲 등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의 추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후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권능이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따라서 관례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타가로 출계한 乙과 丙의 후손들이 그 친가의 생부(生父)인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전·기·상·식

한전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적용 대상은?

A 주택용 중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국한하여 적용하는 제도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대상입니다.

Q 복지할인 제도 신청절차는?

A 신청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사회복지시설) 등의 해당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신청방법은 한전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팩스로 한전에 보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신청 고객

에 대해서는 신청 다음 달부터 요금부터 2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Q 대가족 요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신청절차는?

A 대가족 거주 고객에 대하여 주택용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한전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한전에 보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월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각 누진적용 구간별로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하여 드립니다.
문의: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031-539-0231

의·학·상·식

포천병원 안과과장 최진호



봄철에 유행하는 눈병

봄철은 눈병의 계절 - 꽃가루나 유행성 눈병 많다
살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은 봄이 되면 해마다 흔히 찾아오는 봄철에 있는 데 그중 하나가 봄철 각결막염이라고 하는 눈병이다. 계절이 바뀌면서 봄이 나 여름에 흔히 나타나며, 양쪽 눈에

동시에 잘 생긴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게 흔한데 남자가 여자보다 흔하게 생기며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굉장히 가려워 하는게 특징이다. 가려우니까 심하게 비비게 되고 눈에서 끈끈하고 실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환자 보호자에게 물어 보면 대개 이런 증상은 매년 같은 시기에 나타나곤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봄, 여름에 생겼다가 서늘한 가을이 되면 증세가 회복되는데 매년 계속 되다가 대부분 사춘기가

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철 각결막염]
환자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마치 작은 자갈이 깔려 있는 듯이 보이는 유두증식이 있 눈꺼풀 결막에 나타나므로 쉽게 진단할 수 있고 병력이 오래 될 수록 이런 유두증식이 더욱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어떤 환경에 의한 즉시형 과민반응의 일종인데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개 저절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예방목적으로 크로몰린소듐 점안액을 눈에 넣는다. 그 외에 증상완화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점안액이나 항히스타민제 점안액을 쓰는데 오래 쓰면 약에 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과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포천병원(031-539-9114)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 피해 그 후

"당신은 딸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자, 당신은 내가 문제가 있는 이상한 아이처럼 느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무척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빠! 아빠의 그런 태도가 나를 더 실망시키고 좌절 시켰다는 것을 아세요?
아빠! 내가 아빠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이야기나 무언가를 직접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예요. 아빠! 제발 내 말 좀 그냥 들어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위해 할 필요가 있는 일까지도 아빠는 나를 위해서라며 다 해주시려고 했지요.

설명하시려 했지요. 아빠! 아빠는 내 감정들을 짓밟아 버리셨어요.
내가 아빠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자, 당신은 내가 문제가 있는 이상한 아이처럼 느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무척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빠! 아빠의 그런 태도가 나를 더 실망시키고 좌절 시켰다는 것을 아세요?
아빠! 내가 아빠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이야기나 무언가를 직접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예요. 아빠! 제발 내 말 좀 그냥 들어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위해 할 필요가 있는 일까지도 아빠는 나를 위해서라며 다 해주시려고 했지요.

아빠 아세요? 아빠의 그런 행동이 나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더 일으킨다는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잠시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아빠! 내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 아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봐주세요. 아빠가 그렇게 편안하게 저를 봐주신다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빠! 제발 내 말 좀 그냥 잘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원할 때는 아빠의 말을 좀 참고 저를 기다려주세요. 편안하고 안심되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특수관계자외의 거래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세법에서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해 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당감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

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

격을 말합니다.
- 특수관계자란 거주자의 친족과 배우자, 종업원 및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거주자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을 무상으로 받거나 높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등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Advertisement for Mosa Chong Sang (모자창성) specialized in household appliances. It features a large green banner with the company name, images of various appliances like rice cookers and blenders, and a photograph of the factory building. Text highlights their status as a domestic top manufacturer and a world-famous exporter, with a focus on automated production systems for mass production. Contact information for representative Baeng Seung-ho is provided.